



대불청 서울지구 제1회 통일자전거 대행진 현장

**쾌**청한 가을 하늘이 맑게 드러난 10월 9일 이른 아침. 120여 명의 청년불자들이 일산 여사 옆 정발중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다. 조계종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지 회장 현일환·이하 서울지구가 이 땅의 자주통일을 염원하며 마련한 제1회 통일자전거대행진에 참여하는 불자들이다. 오늘은 임진각까지 총 30km를 자전거로 달려야 한다.



대불청 회장 김익석씨(사진 중앙)가 서울지구 임원들과 함께 임진각 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있는 대불청 서울지구 회원들.

□ "통일로 가는 길처럼 자전거로 달리는 일도 쉽지는 않군요"

오전 9시. 108대의 자전거가 일산 여사를 출발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깊다. 세간사의 모든 고뇌를 집약해 흔히 108고뇌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회하거나 발원하기 위해 불자들이 올리는 절 역시 108배이다. 그래서 서울지구도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108대 자전거로 숫자를 맞추었다.

이날 행사는 여사에서부터 임진각까지 약 30여 km에 이르는 구간을 자전거로 달리는 것이다. 봉은사청년회, 보문사선재청년회, 화계사청년회, 도선사청년회, 구룡사청년회, 금강정사 금강청년회, 길상사청년회, 영화사 율곡사청년회 등 서울 각 지역에서 모인 청년 불자들이 우렁찬 구호 소리와 함께 출발했다.

"남자는 앞에, 여자는 뒤에서 따라오세요!" 맨 앞에서 행사진행자랑을 맡던 서울지구 지도위원 인성호씨(조계종 포교원 신도계장)가 외치자, 대열이 금세 정돈된다. 교통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의 엄호를 받으며, 108대의 자전거가 힘차게 달려 나갔다.

"속도가 15km도 안 나와요. 아무래도 다들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다보니까..." 진행자랑을 맡던 속도를 살펴본 인씨의 무전기에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사고가 났습니다!"

행렬을 멈추고 차에서 뛰어내려 사고가 난 지점으로 달려가니 다행히 자전거를 몰던 젊은 여성 불자가 잠깐 넘어진 것에 불과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풀어내리며 인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로 옆으로 승용차들이 달려가는 6차선 도로라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자전거 몰 수 있어요?" "네, 끝까지 몰 수 있습니다!"

넘어진 참가자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행렬은 지체 없이 출발했다. 중간 중간 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온몸 긴장의 연속이다. 진행위원들은 그때마다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열심히 페달을 밟았다. "통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것처럼, 자전거로 국토를 달리는 일도 쉽지가 않군요." 자전거 행렬의 앞 뒤를 돌보며 안전주행을 지도하던 인씨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참회·발원 의미 담아 108대 준비  
서로를 격려하며 임진각까지 달려  
육법공양 올리고 통일발원문 낭독

# 북녘 땅까지 범륜 굴러가길...



□ "꼭 완주해 통일염원 이뤄야죠"

중간 휴식시간. 15km를 쉼 없이 달려온 자전거들이 멈추자마자, 참가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오늘을 위해 며칠전부터 자전거 타기 연습을 했다는 오현주씨(23·봉은사청년회)는 "내리막을 달릴 때의 기분이 너무 상쾌하다"며 상기된 얼굴로 웃으며 "오늘 꼭 완주해서 통일을 발원하는 범우들 마음에 내 마음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들이 쉬는 동안에도 잠시도 쉬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박건원씨(24·화계사청년회)는 자전거 타는 법을 곁에 있는 범우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학년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오늘도 출강해야하는데,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박씨는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면 통일이 가까워진다는 각오로, 하프코스만이라도 끝까지 뛰고 들어가겠다"고 말해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다. 30분 남짓 쉬 참가자들은 다 함께 "통일! 통일! 화이팅!"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다시 출발했다.

현일환 서울지구회장은 "자체 동력이 없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통일도 우리 스스로 행동해야 다가갈 수 있다는 뜻에서 청년불자들의 큰 원력으로 통일을 앞당기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서울지구 뿐만 아니라 전체 대불청 회원이 참가하는 통일대행진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통일 앞당기는 동량이 되게 하소서"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임진각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곧바로 범회준비에 들어갔다. 패발을 세우고 오색천으로 장엄한 불단에, 각 사찰청년회에서 두 명씩 선 발원 여성범우들이 한복을 입고 육법공양을 올렸다.

이어 한마음으로 통일발원문을 낭독했다. "통일을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하느니 젊음이라는 푸른 기백과 불타련의 용기로 이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동량이 되게 하소서."

이날 서울지구 불자들은 북녘 땅까지 부처님의 범륜이 하루 빨리 굴러가기를 기원하며 임진각 평화의 종 타종식을 가졌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 수교유 조교인 동회 스님(동국대 국악과 겸임교수)의 통일기원 범패공연과 봉은사청년회의 '그날이 오면'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행사 마지막은 풍물놀이 한마당으로 신명나게 어우러지며 이 땅에 평화통일의 날이 오기를 기원했다.

글=이은비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 불경, 금책, 금병풍

신용크기(3.5×5cm, 5×7cm)  
금장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복장	불호소	영가
상	신장	천도
의식	사용	

(관세음보살 보문품) 2쪽금병풍 크기 (1쪽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장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경전 차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책(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갖는 효능과 34개의 썩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婦人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정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이웃배가 냉하신 분

원적외선 “침” 썩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세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 목, 어깨, 무릎, 등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알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